

구 부총리, 미국 주요 싱크탱크 면담, 한미 2+2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

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.24(목)~7.25(금), 워싱턴 D.C.에서 진행되는 ①미국 주요 싱크탱크 면담, ②한·미 2+2 통상협의를 위해 7.24(목) 출국한다.

【 ① 미국 주요 싱크탱크 면담 】

구 부총리는 현지시각 7.24(목)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*(AFPI,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),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(PIIE,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)와 면담을 진행하여,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한미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.

* 2021년 설립,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미국 우선주의 의제 중심 연구기관

【 ② 한미 2+2 통상협의를 】

구 부총리는 현지시각 7.25(금)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“2+2 통상협의를”에 참여한다. 이 협의에는 美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, 무역대표부(USTR)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	책임자	과 장	심승현 (044-215-4830)
		담당자	사무관	윤현곤 (gonnnn@korea.kr)
	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정주 (044-215-76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혜 (wp2428@korea.kr)